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선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5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의 인수 목표가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한 땅에 회복을 확신 하소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한 땅의 하늘을 맑게 하소서 - 복한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 내소서 - 복한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소서 - 복한 땅에 교회들을 세우소서 - 복한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강화 시키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2.18(목) 오전10시 구월동집회장소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전시간 훈련 전반기 예비훈련

- ① 일 시 : 2.22(월)-28(주일) 등록 22일(월) 오후 4시부터
-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 ③ 훈련비 : 217,000원(농협351-6794-0008-23 성경진리사역원)
* 입금시 본인이름으로 입금바람
- ④ 신 청 : 집사실로 2.15(월)까지

2. 봄 이스라엘 탐방

- ① 일 시 : 3.22(화)-31(목)
- ② 장 소 : 이스라엘 지역
- ③ 예상경비 : 3,800,000원
- ④ 신청금 : 400,000원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 ⑤ 신 청 : 집사실로 2.15(월)까지

3. 여름 국제 아시아 대학생 훈련 안내

- ① 일 시 : 7.14(목)-20(수)
 - 1) 훈련 집회 : 7.14(목)~7.17(주일)
 - 2) 쉬임 여행 : 7.18(월)~20(수) 2박3일
- ② 장 소 : 1) 훈련집회 : 대만 중부취임센터
2) 쉬임여행 : A팀 : 의란, 화련, 속박 : 화련쪽 호텔
B팀 : 기오승, 칸딘, 속박 : 칸딘쪽 호텔
- ③ 훈련 내용 : 2016년 여름 결정-연구
- ④ 훈련 대상 : 봉역없이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대학생, 졸업생, 봉사자
- ⑤ 신 청 : 집사실로 3.1까지 신청(전국 100명 선착순임)
* 모든 집회는 영어로만 진행함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1.29.(월) ~ 2016.01.31(주일))

지역	1지역 (54명)				2지역 (96명)				3지역 (84명)				4지역 (82명)				5지역 (87명)				6지역 (43명)				7지역 (26명)				계											
	학	의	의	인	의	의	의	인	의	의	의	인	의	의	의	인	의	의	의	인	의	의	의	인	의	의	의	인												
인수목표	113				157				110				194				146				80				800															
주요상	4	13	6	12	13	6	9	15	10	16	4	10	20	12	24	16	13	20	11	15	5	2	9	19	11	5	5	7	4	14	27	14	12	18	5	13	7	17	9	452
기도	4	3	1	6	DVD				5	4	12	8	5	6	4	4	3	10	5	5	5	2	2	6	17	4	3	7	6	5	2	3	147							
그룹	7	9	6	13	DVD				19	8	14	7	6	3	3	7	11	9	4	5	17	7	14	5	5	8	7	6	7	6	203									
아침부흥	11	5	4	7	8	1																																		
이런이	11				6				8				15				7				5				7				59											
야영소곡																													0											
중고급부	8				2				11				6				21				9				36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2. 14. 16-07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속죄 덮개 - 화해 장소

**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배막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화해 장소

그리스도께서 화해 장소이심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 덮개로 세우셨으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화해 덮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화해 장소를 의미하는 힐라스테리온(hilasterion)이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이 단어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궐의 뚜껑, 덮개로 사용된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와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칠십인역 또한 법궐의 덮개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 흠정역은 '시은좌'라는 번역을 채택한다. 이것은 그러한 번역가들이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였음을 인식하고 화해 장소를 자리로 간주하였음을 가리킨다.

화해가 단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장소로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자신을 화해 덮개이신 분으로 세우셨다. 이 분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화해 덮개를 은혜의 보좌로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한다.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궐의 덮개이므로 지성소 안에 있다. 그러므로 법궐의 덮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이러

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은 분명 은혜의 보좌이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 사실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아야 한다.

간증권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덮개 있는 법궐 전체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았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문제이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하신다. 우리는 법궐 위의 화해 덮개를 그리스도 자신 외의 어떤 것이라 생각하거나 화해를 단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 반복하건대, 그리스도는 뚜껑인 덮개를 포함한 법궐 전체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화해 장소, 화해 덮개이심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적은 까닭에 그들은 이 덮개 위에 뿌려진 피의 귀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의 피의 귀함을 소중히 여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신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인 제단을 떠나지 못한다. 구속하는 피에 대해 만들어진 찬송가의 대부분이 십자가에 집중된다. 당신은 화해 덮개 위에 뿌려진 구속하는 피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는 찬송가를 한 곡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러한 찬송가를 모른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법궐에 대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지극히 피상적이다.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법궐에 관한 기록을 단순히 교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체형에서 법궐의 장소를 강조하지 않는다. 당신은 법궐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말한 성경 교사를 아는가? 많은 믿는 이들이 사람의 영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영과 혼을 같은 뜻의 용어로 간주한다. 많은 성경교사들도 이분설(二分說)-사람이 몸과 영혼의 두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교리-을 믿고 삼분설(三分說)-영, 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진리-을 믿지 않는다. 속생명을 강조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과 영과 혼이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의 영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가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예표 한다는 것을 알 길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체합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곳은 어디인가? 당신은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 하늘로 가는가? 분명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 따라 당신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당신은 당신의 거둔다 사람의 영 안으로 가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말해서, 은혜의 보좌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법계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체합적인 것이다. 그것은 단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영으로 돌이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은혜의 보좌는 무엇인가? 그것은 법계로 예표 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며, 특히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최고 부분, 즉 화해 덮개로 예표 된 그리스도이다.

피와 그룹들

두 개의 중요한 상징들-피와 그룹들-이 법계의 덮개에 연관된다. 피는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속을 상징하며 그룹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 덮개,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구속하는 피가 뿌려진 화해 덮개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다. 여기 이 덮개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교통을 가진다. 더 나아가, 이곳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상과 계시와 교훈을 받는 곳이다.

이상으로 통제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매일의 걸음은 윤리나 도덕이나 헌신이나 경건이나 종교로 인해 통제받아서 안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성경만으로 통제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엇으로 통제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법계의 덮개 위에서 그리스도와 만날 때 본 이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 잠언 29장 18절은 이상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한다. 이것

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이상임을 가리킨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이상을 받는가? 그리스도의 최고 부분, 화해 덮개 위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깊은가!

매일 우리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만난다. 우리의 입장인 구속하는 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주입되고 계시와 이상과 교훈과 지시를 받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 주입과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경건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주입을 받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장 뛰어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헌신, 경건, 종교, 도덕, 윤리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한다.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반대할지 모른다. 그들의 반대는 단순히 그들의 형편없는 상황을 드러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분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셨다. 우리는 그분이 더 많이 열고자 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마지막 회복 안에,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움직임 안에 있음을 믿는다. 세상의 상황은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렀다.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회복이다 그것은 법계로 예표 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회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계의 크기가 완전한 단위의 절반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아내가 그 남편의 다른 절반이듯이 법계로 예표 된 그리스도도 또 다른 절반-교회-을 가짐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일 것이다. 신랑과 신부로 더불어 우리는 온전히 간증을 소유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최종적인 회복을 통하여 주님은 이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를 선포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터디 1074-1081p에서 발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활(하나님-사람의 생활)

- 일상생활에서

요일1:2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새 길 안에서의 생활

부흥되고 이길

첫째, 우리는 아침마다 부흥되어야 한다. 하루의 끝은 밤이며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다.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소생과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1분을 접촉해야 하고 주님을 누리면서 두세 구절을 사용하여 그분의 풍성한 공명을 흡수해야 한다. 그 시간은 10분 혹은 20분이면 족하다. 그것은 마치 아침밥을 먹는 것과도 같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충만 되도록 주님 앞에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부름으로써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롬 10:12). 우리가 얼마나 바쁘든지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여전히 '오 주 예수!' 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죄들을 처리하고 항상 그 영으로 충만 되어야 한다(행 13:52). 조금이라도 불의한 행위나 거짓이나 죄들이 있다면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도록 자백하고 구함으로써 그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영을 좇아 행한다(롬 8:4). 우리의 밖의 움직임은 안의 영에 의해 통제된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신다(빌 1:21).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세 항목-주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 죄를 처리하고 항상 그 영으로 충만 되는 것,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를 말하게 된다(딤후 4: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를 말해야 하고 주를 위해 간증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처음 두 항목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를 장비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항목들은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 가져야 하는 생활이다.

오직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으로써 거룩해지고 이길 수 있음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에 속한 하나님-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종류에 속한 하나님-사람으로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느슨한 방식으로 말할 수 없다.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사람으로서 생활하는 하나님-사람이어야 한다.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 종류에 속한 하나님-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고자 하는 선한 기뻐하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도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여야 한다.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는 이로서 초창기에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할지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러한 책들은 사실상 길을 보여 주지 못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므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며 통해서이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종류에 속한 하나님-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기 위한 요구 조건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몇몇 요구 조건이 있다. 첫째 요구 조건은 매일 아침 부흥되는 것이다. 해가 뜨는 것처럼 매일 아침 우리는 부흥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길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의의 길이다(잠 4: 18). 둘째 요구 조건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아침 부흥으로 시작해서 그날 계속해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고,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후 4: 16). 셋째 요구 조건은 매순간 그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 5:25). 넷째 요구 조건은 모든 것에서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롬 8:4),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빌 2: 14), 이기적인 의도나 탐욕 없이(갈 5:26), 그 영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살기 위한 다섯째 요구 조건은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고 동심함의 안에 있는 것이다(고전 1: 10)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51-153p 발췌〉